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 4

통권 25호

April 2007

**| 이달의 이슈 |** 블루오션 :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  
박 창 일(세브란스병원장)

**| 경제포커스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  
김 남 현(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킹  
원 용 희(용인대 관광학과 교수)

**| 생생리포트 |**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 지 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박 희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치구탐방 |**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 재 형(마포구청 기획재정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부록 |** 통계표

# 서울경제

2007. 4

## 차 례

이달의 이슈	3	<b>블루오션 :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b> 박창일(세브란스병원장)
경제포커스	9	<b>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b> 김남현(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19	<b>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킹</b> 원응희(용인대 관광학과 교수)
생생리포트	29	<b>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b> 박지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치구탐방	49	<b>「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b> 김재형(마포구청 기획재정국장)
경제동향	59	<b>요 약</b>
	60	<b>경 기</b>
	68	<b>고 용</b>
	76	<b>부동산</b>
	83	<b>금 융</b>
부록	95	<b>통계표</b>

# 블루오션 :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cipark@yumc.yonsei.ac.kr

의료허브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 세계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수렴하는 종착점인 동시에 이를 통해 세계로 다시 발산하는 기착점이 되는 의료산업의 중심을 일컫는다. 최근 이 의료허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건강하고 윤택한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의 의지가 맞물려 의료산업, 의료관광, 의료허브가 미래사회를 이끌 차세대 新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난 15년간(1990~2005년) 통계를 보면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67만 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640만 개가 늘었다. 관광객이 27명 늘어나면 일자리가 1개 창출된다는 통계수치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제조업의 한계는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대체할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아직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작년 서비스 수치 적지는 4년 전에 비해 무려 3.4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교육·의료·관광 등 국내 서비스에 만족하지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세브란스병원장, 유비쿼터스 의료허브 구축 사업단장
- 유비쿼터스 원격의료 기반의 서울시 중심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 사업 (서울시 지원) 수행

못한 소비자들이 해외에 나가 돈을 쓴 탓이다.

그중에서도 저렴한 의료비용과 신속한 진료, 호텔에 버금가는 첨단 인테리어와 질 높은 서비스를 내세운 아시아권 의료산업은 최근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단순한 치료의 목적만이 아닌 관광을 겸하여 아시아의 병원을 찾는 북미, 중동, 유럽의 환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태국의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8만 명으로 외국인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태국 방콕 수쿰빏에 위치한 범룽랏 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Bangkok)은 연간 90만 명의 환자 중 약 40%에 달하는 35만 명이 외국인이다. 태국은 저렴한 병원비와 제대로 된 호텔식 서비스, 편리한 비자 및 통역 서비스, 풍부한 관광자원,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한 의료진을 통한 질 높은 의료수준을 내세워 해외환자 유치에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5년에만 37만 명 이상의 외국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청, 경제개발위, 무역개발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싱가포르 메디신을 설립,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11개 병원이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을 획득했다. 영리병원들의 외국인 입원환자 비율은 70% 수준으로 파크웨이 그룹(Parkway Holdings Ltd.)은 동남아 각 국에 병원이나 환자 유치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제적으로 환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밖에 2005년 2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인도는 선진국에 비해 8분의 1수준인 의료서비스 가격과 신속한 시술, 의료비자 간소화 등으로 수출산업 육성이 한창이며 2004년 15만 명의 해외환자를 끌어들이는 성과를 특화하여 차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CNN 등의 미디어를 통한 공격적 해외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홍콩과 중국, 두바이 등이 저마다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제적인 의료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의하면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수는 1만 명으로 태국의 12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해외환자 유치 수입도 태국의 1조 7000억 원에 비해 3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장래가 서비스산업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지금은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 전략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점이며 그 핵심에 의료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높은 의료수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국, 미국(교포), 일본인 등 외국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미용·성형, 치아미백·교정, 척추수술 분야에서 70~80%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암과 흉부외과 질병 치료 등 중증질환 진료 분야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혹자는 한국의 의료수준이 벌써 세계 정상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의료진인지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두 번째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기술(IT)이다. 컨설팅업체 네모파트너스가 아시아 지역의 헬스케어 허브 후보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총 9개의 평가 항목 중 의료수준, 의료시설, IT 인프라, 허브 공항 보유, 지리적 여건, 산업 규모 등 6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경쟁력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의료 수준, IT 인프라, 산업 규모 등 3개 항목에서는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맥킨지도 한국의 5년 뒤 모습은 우수하고 풍부한 의료 인력에 IT가 접목되어 세계 부유층을 끌어들이는 ‘헬스케어 허브(Healthcare Hub)’ 일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다.

이렇듯 한국은 탄탄한 IT 기반과 세계 수준의 의료진 등을 갖춘 아시아 U-헬스케어 허브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이다. 특히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IT 인프라가 집약된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의료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는 것이다.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용, 열악한 정부 지원과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에 의한 국제병원의 설립, 외국인 환자를 위한 원스톱 치료시스템 구축, 국제 진료네트워크 확대, 의료선진국의 면허를 취득한 우수 의료진의 영입, 의료사고 및 분쟁 조정시스템의 구비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IT 서비스의 접목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U-헬스케어 허브라는 블루오션을 통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7년 대통령 신년연설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식에서 연관광객 1200만 명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서울시내 대형 병원들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합세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외국인 전용병원 또는 병동을 지정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700명상 규모의 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아시아 최고 수준의 암 전문치료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재탄생한 세브란스병원은 ‘글로벌 세브란스’를 기치로 내걸고 JCI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사를 마쳤으며 중국에 ‘칭다오(靑島) 세브란스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사이프러스에서 개최된 제 2회 ‘세계의료관광박람회(WHTC: World Health Tourism Congress)’에 국립암센터, 우리들병원과 함께 참가하여 세브란스병원의 국제진료 시스템을 홍보하는가 하면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서울시 지원으로 ‘유비쿼터스 원격진료 기반의 서울시 중심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시아 의료허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가 타 정부부처와 조율 하에 중소규모 병의원과 대형병원을 아우른 산학연 협력 체제를 잘 유지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관광 및 의료정보 산업을 연계해 나간다면 시가 목표로 하는 올해 2500명, 내년 1만 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머지않은 미래에 명실 공히 동북아의 U-헬스케어 허브로 우뚝 선 서울의 위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산업화 시대에 한국의 나아갈 바가 여기에 있음은 물론이다. **SDI**